

2023년 1/4분기 인천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보고서

2023. 1

IN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ontents

| | | |
|-----------------------|---|---------------------------|
| SECTION 1. | | |
| 설문조사 개요 | 1 | <표 목차> |
| SECTION 2. | | |
| 1.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 2 | 1.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4 |
| ① 종합 경기 전망 | 2 | 2. 2023년 대응 강화 및 역점 계획 5 |
| ② 부문별 경기 전망 | 3 | 3. 경영 활동 현안 및 애로 사항 5 |
| ③ 업태별 경기 전망 | 4 | 4. 주 경쟁상대 5 |
| 2. 유통업 경영 환경 전망 | 5 | <그림 목차> |
| ① 2023년 대응 강화 및 역점 계획 | 5 | 1. 인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2 |
| ② 경영 활동 애로 사항 | 5 | 2. 경영 부문별 '23년 1/4분기 전망 3 |
| ③ 주 경쟁상대 | 5 |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2. 12. 9 ~ 12. 21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 RBSI 산출식
(호전예상 응답 기업수 - 악화예상 응답기업수) / 응답기업수 × 100 + 100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소매유통업체 65개사
- 응답기업 분포
 - 업태별 <대형마트 (9개), 편의점(25개), 슈퍼마켓(12개), 무점포소매 (19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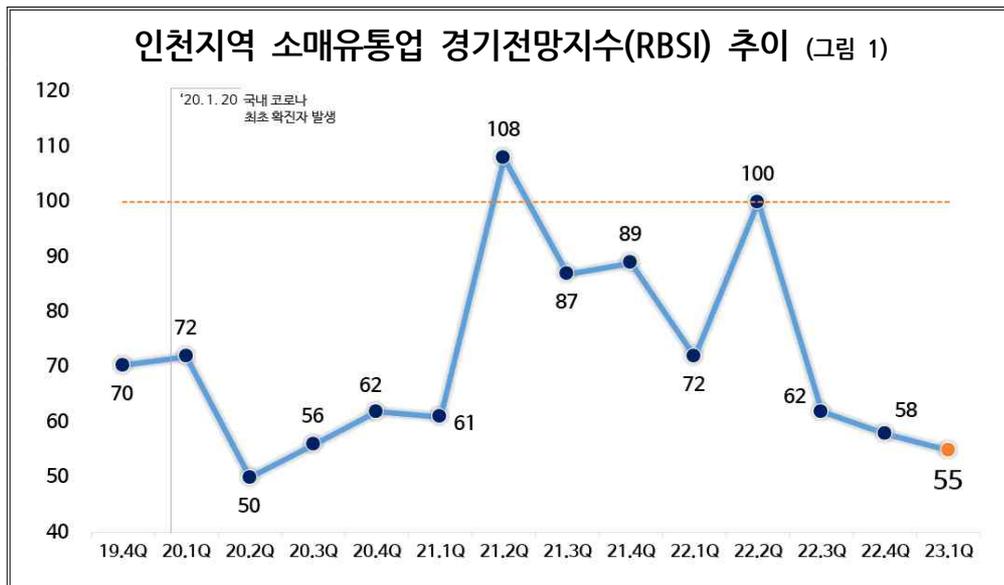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① 종합 경기 전망

- 인천 소재 소매유통업체(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6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1/4분기 인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55'로 집계됨. 이는 인천의 2023년 1/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2022년 4/4분기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임

※ RBSI(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 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인 경우 그 반대 현상을 나타냄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지난 3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며,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전망치('20.2Q <50>)를 기록함. 또한, 전망치 '55'는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올해 초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 경기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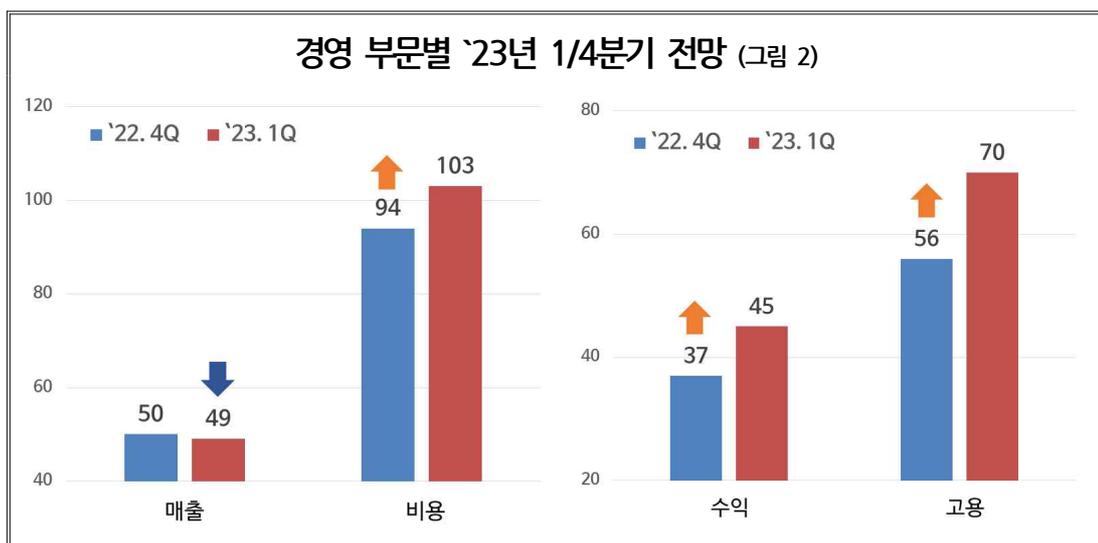


- 코로나 엔데믹, 명절·신학기 특수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부정적 경기전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고금리·고물가 현상으로 인한 인건비·물류비 등의 비용 증가, 상품매입원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② 부문별 경기 전망

- '23년 1/4분기 소매유통업계 매출 전망은 '49'로 지난분기(50)에 이어 낮은 전망치를 보이며, 매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임
- 소매유통업계 비용 발생 전망 지수는 '103'으로 집계돼, 업계 전반적으로 비용 발생이 직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비용 증가를 전망한 이유로는 상품매입원가·원자재가 상승 및 인건비 인상 등의 영향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관련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남
- 수익 전망은 '45'로 부문 내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해, 소매유통업계의 수익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주로, 매출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비용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소매유통업계의 고용 상황 전망은 '70'을 기록하며 지난분기(56) 대비 지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함. 업계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1/4분기 고용 상황은 부정적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 : 9,160원['22년] → 9,620원['23년] (전년 대비 5.0% 인상)



③ 업태별 경기 전망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2023년 1/4분기 업태별 경기전망지수는 「슈퍼마켓(50)」, 「편의점(88)」, 「대형마트(89)」로, 모든 업태에서 1/4분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 슈퍼마켓(50)은 지난분기(67)보다 지수가 하락하며, 업태 중 2023년 1/4분기 경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내다봄. 주로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에 따른 상품매입원가 상승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편의점(88)은 지난분기(92)에 이어 경기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른 업태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매출 감소, 동절기 비수기 영향 등이 경기위축을 전망한 요인으로 조사됨
- 대형마트(89)는 지난분기(78)보다는 지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를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회복이 지연돼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및 대형마트 간 경쟁 심화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렇듯, 소매유통업계 쏠업태에서 2023년 1/4분기 경기 둔화를 전망한 데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우려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는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고물가에 따른 비용(인건비·매입원가 등) 상승 및 금리 인상 우려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표 1)

| 업태 | '20년 | | | | '21년 | | | | '22년 | | | | '23년 | 전기비 증감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
| 총합 | 72 | 50 | 56 | 62 | 61 | 108 | 87 | 89 | 72 | 100 | 62 | 58 | 55 | - 3p |
| 대형마트 | 74 | 40 | 43 | 50 | 40 | 110 | 77 | 80 | 81 | 107 | 89 | 78 | 89 | + 11p |
| 슈퍼마켓 | 71 | 52 | 52 | 64 | 75 | 111 | 83 | 97 | 59 | 97 | 17 | 67 | 50 | - 17p |
| 편의점 | 69 | 64 | 81 | 74 | 65 | 100 | 107 | 85 | 82 | 98 | 104 | 92 | 88 | - 4p |

※ 인천지역 백화점 업태의 경우, 표본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개수 미달로 지수에 반영하지 않음

2 유통업 경영 환경 전망

① 2023년 대응 강화 및 역점 계획

- 소매유통업계의 2023년 대응 강화 및 역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비용 절감’(38.5%) 및 ‘온라인 강화’(30.8%)가 주요 응답으로 나타남. 인건비·운영비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어서 ‘프로모션 강화’(26.2%), ‘상품 개발’(20.0%), ‘점포 리뉴얼’(15.4%) 등의 순으로 조사됨

2023년 대응 강화 및 역점 계획 (중복응답) (표 2)

| 조사항목 | 비용 절감 (인건비, 운영비 등) | 온라인 강화 | 프로모션 강화 | 상품 개발 | 점포(매장) 리뉴얼 | 오프라인 출점 | 배송 경쟁력 | 유통 산술 도입 | 없음 | 기타 |
|-----------|-----------------------|----------------|----------------|----------------|----------------|---------------|--------------|--------------|---------------|--------------|
| 응답업체 (비중) | 25개 (38.5%) | 20개 (30.8%) | 17개 (26.2%) | 13개 (20.0%) | 10개 (15.4%) | 7개 (10.8%) | 6개 (9.2%) | 5개 (7.7%) | 9개 (13.8%) | 2개 (3.1%) |

② 경영 활동 애로 사항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의 2023년 1/4분기 경영 활동 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은 ‘비용 상승’(23.1%)으로 조사됨. 이어서 ‘소비 위축’(20.0%), ‘상품 매입 원가 상승’(16.9%), ‘소비자 물가 상승’(12.3%) 순으로 조사됨

다음 분기 경영 활동에 따른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 현안 및 애로 사항 (표 3)

| 조사항목 | 비용 상승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 등) | 소비 위축 | 상품매입 원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 | 시장경쟁 심화 | 유통 규제 |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 기타 |
|-----------|----------------------------|------------|------------|-----------|-----------|----------|--------------|----------|
| 응답업체 (비중) | 15개(23.1%) | 13개(20.0%) | 11개(16.9%) | 8개(12.3%) | 7개(10.8%) | 4개(6.2%) | 3개(4.6%) | 4개(6.2%) |

③ 주 경쟁상대

- 주 경쟁상대를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 쇼핑’(6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어서, ‘대형마트’(29.2%), ‘편의점’(20.0%) 순으로 조사됨. 이러한 응답은 쿠팡·네이버·세븐일·이마트 등 소비자 편의 배송 서비스 성장,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된 것과 명절·신학기 등을 맞아 대형마트 간 경쟁이 심화된 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주 경쟁상대 (중복응답) (표 4)

| 조사항목 | 온라인 쇼핑 | 대형마트 | 편의점 | TV홈쇼핑 | 전통시장/상점가 | 슈퍼마켓 | 백화점 | 기타 (식자재마트) |
|-----------|------------|------------|------------|-----------|----------|----------|----------|------------|
| 응답업체 (비중) | 41개(63.1%) | 19개(29.2%) | 13개(20.0%) | 7개(10.8%) | 3개(4.6%) | 2개(3.1%) | 2개(3.1%) | 1개(1.5%) |